

5·18 헬기사격 탄흔 분명한데 쏜 사람도 쏜 사람도 없으니...

여전히 모르쇠 정호용, 광주에서 뭘 했나

〈5·18때 특전사령관〉

본보 통화서 “광주와 관련 없다...자위권 발동 회의 몰라” 발뺌 매일 광주 9차례 오갔던 5공 실세...집단발포 당일에도 현장에 수사기록서 작전 관여 드러나...이젠 진실 밝혀 역사 바로세워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엇을 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시민을 향해 집단발포를 한 공수부대의 사령관으로 5월 20, 21, 22, 23, 24, 25, 26, 27, 28일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상부대)에 마련된 사령관실에서 3명의 공수여단장과 회동한 그는 발표명령과 헬기 사격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37년 만에 계엄군의 헬기사격 때문으로 드러났지만, 광주학살 원흉으로 지목된 전두환은 지금까지도 “광주와 나는 상관없다”고 발뺌하며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책임 소재와 함께 발표명령 등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정 전 사령관의 5·18 당시 행적과 역할을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정 전 사령관은 그러나 최근 광주일보 통화에서 “나 역시 광주와 관련 없다. 자위권 발동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전두환이도 노태우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전일빌딩 헬기사격 사격 지시 및 발표사실 인지 여부는 물론 자위권 발동 회의(1980년 5월 21일 국방장관실)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 복수의 군 당국자 진술, 이런 내용이 서울된 ‘5공화국 전사’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얘기다. 내가 특전사령관이긴 했지만 예하부대가 현지부대(31사단)에 작전 배속돼 내가 관여할 부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5·18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정 전 사령관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80년 5월 20일 밤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분배된 점(국방부과거사 규명위 보고서)에서 정 전 사령관을 발표명령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광주와 서울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최소한 발표명령에 관여하거나 발표명령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1일 해당 기록에 따르면 정 전 사령관은 5·18 민중항쟁 당시 최소 9차례 광주(전교사)와 서울(국방부, 육군본부)을 오가며 도청 앞 집단발포(5월 21일 오후 1시께)를 한 최종 11공수여단장 등 예하부대장을 만나 작전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공수부대장들로부터 “우유부단한 윤홍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5월22일 오전 10시 부로 소준열 사령관으로 교체되게 전두환에 건의한 것도 정 전 사령관으로 수사 기록엔 나왔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쓴 “공수부대 사기를 꺾지 말고 화성을 무릅쓰고라도 조속히 사태 수습해달라”는 진필 메모를 소준열 전교사령관에 전달하며 수시로 작전에 관여한 것 역시 정 전 사령관이었고 당시 수사기록은 전하고 있다.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엇을 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시민을 향해 집단발포를 한 공수부대의 사령관으로 5월 20, 21, 22, 23, 24, 25, 26, 27, 28일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상부대)에 마련된 사령관실에서 3명의 공수여단장과 회동한 그는 발표명령과 헬기 사격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37년 만에 계엄군의 헬기사격 때문으로 드러났지만, 광주학살 원흉으로 지목된 전두환은 지금까지도 “광주와 나는 상관없다”고 발뺌하며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책임 소재와 함께 발표명령 등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정 전 사령관의 5·18 당시 행적과 역할을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정 전 사령관은 그러나 최근 광주일보 통화에서 “나 역시 광주와 관련 없다. 자위권 발동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전두환이도 노태우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전일빌딩 헬기사격 사격 지시 및 발표사실 인지 여부... (중략) ...

하지만, 5·18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정 전 사령관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80년 5월 20일 밤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분배된 점(국방부과거사 규명위 보고서)에서 정 전 사령관을 발표명령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광주와 서울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최소한 발표명령에 관여하거나 발표명령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1일 해당 기록에 따르면 정 전 사령관은 5·18 민중항쟁 당시 최소 9차례 광주(전교사)와 서울(국방부, 육군본부)을 오가며 도청 앞 집단발포(5월 21일 오후 1시께)를 한 최종 11공수여단장 등 예하부대장을 만나 작전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공수부대장들로부터 “우유부단한 윤홍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5월22일 오전 10시 부로 소준열 사령관으로 교체되게 전두환에 건의한 것도 정 전 사령관으로 수사 기록엔 나왔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쓴 “공수부대 사기를 꺾지 말고 화성을 무릅쓰고라도 조속히 사태 수습해달라”는 진필 메모를 소준열 전교사령관에 전달하며 수시로 작전에 관여한 것 역시 정 전 사령관이었고 당시 수사기록은 전하고 있다.



정호용 전 사령관

식적으로는 전교사령관과 31사단장에게 공수부대 작전권 및 지휘권이 있었으나 공수부대 특성상(육본 직할부대, 직속부대에 대한 충성심, 후방부대 지휘관에 대한 우월의식) 현지 지휘관이 공수부대 병력장악 및 작전지휘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한 검찰 진술도 정 전 사령관이 집단발포 등 광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5·18 당시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준장)과 황영시 육군참모 차장 등에서 헬기에 장착된 발포 사격을 명령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육군 1항공여단 103 항공대대장이 “11여단장(공수여단)이 헬기 무전으로 폭도들을 무차별 사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광원경으로 확인해보니 아군으로 나타났지만 여단장은 물론 전교사 사령부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더라도 정 전 사령관이 계엄군 헬기 사격에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 전 사령관을 포함해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육참총장), 소준열 전교사령관, 정웅 31사단장 등 5·18 관련 군 인사들을 조사했던 검사들 역시 정 전 사령관을 공수부대의 실질적 지휘관으로 지목했다.

정 전 사령관은 그러나 검찰이 ▲전교사 2층(광주)에 특전사령관 전용 방실을 두고 전용 상황실을 운영한 점 ▲공수부대 전용 무전기 안테나를 운영한 점 ▲집단 발포 전 날(20일) 3·7·11 공수 여단장들이 31사단장을 제쳐놓고 전교사령부에서 정 전 사령관과 회동한 점 ▲5·18 민중항쟁 당시 공수부대원들에게 3000만원의 진압 격려금을 지급한 점을 포함 16가지의 거론하며 압박했다. “나는 지휘권이 없었고 격려차 방문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집단 발포 당일도, 실탄 분배가 이뤄진 날도 정호용은 광주에 있었다. 최소한 정호용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두환이 입을 다물면 정호용이라도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혼밥·혼술에 인스턴트 1인 가구 건강 ‘적신호’

음주·흡연·비만 위험성

광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혼밥족이다. 바쁠 때면 1분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종종 혼자 점심을 먹는다. 음식도 빨리 나오고 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또 다른 직장인 임모(여·28)씨도 가끔 저녁 약속이 없을 때면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 등을 먹고 귀가한다. 임씨는 식사뿐 아니라 술까지 편의점에서 사다가 혼자 집에서 조금씩 먹는 혼술족이기도 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혼밥·혼술족, 1인 가구가 건강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신 건강 취약계층으로의 고찰 및 대응’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1~6기(1998~2014년)를 분석한 결과 20~30대 청년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생활, 건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후 건강의 취약점, 정책 지원 역할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설 연휴 광주·전남 가정폭력 무려 177건

설 연휴 나흘간 광주·전남에서 177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44건이다. 연평균 하루 35건 발생한 것에 비해 무려 25% 급증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화목해야 할 명절에 유독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31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설연휴 나흘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177건이다. 광주 84건·전남 93건으로, 하루 평균 광주 21건·전남 23.3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의 하루 평균 17.4건, 18건과 비교하면 각각 20.7%(3.6건), 29.4%(5.3건) 많은 셈이다. 가정폭력 관계는 전남의 경우 부부 사이가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

모·자식간(36.2%), 형제간(5.8%),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즐거워하는데 여성의 경우 음식을 장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남성도 해야 할 명절에 유독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31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설연휴 나흘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177건이다. 광주 84건·전남 93건으로, 하루 평균 광주 21건·전남 23.3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의 하루 평균 17.4건, 18건과 비교하면 각각 20.7%(3.6건), 29.4%(5.3건) 많은 셈이다. 가정폭력 관계는 전남의 경우 부부 사이가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

“음주차량에 치였다” 신고 20대 경찰에 행패... 뒤늦게 “술 취해서”



○“음주 차량이 나를 치었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술을 마시고 황당할 일을 벌인 20대 남성이 유치장 신세.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27)씨는 지난 30일 새벽 4시 4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무지구

대 소속 A(34) 경장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려하자 막아선 데 이어 손바닥으로 A경장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1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차에 치였다고 신고하고 경찰을 때린 게 맞느냐. 술에 취해 무슨 일을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한숨을 푹푹. /김형호기자khh@

광주서 비둘기 7마리 폐사... AI 검사 착수

광주의 한 도로에서 비둘기 7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됐다. 폐사체가 발견된 도로 주변에서는 비둘기 먹이로 보이는 잡곡이 발견됐다. 해당 구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가능성을 우려, 폐사체를 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빠르면 오는 4일께 나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일 광주 북구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도로변에서 폐사한 비둘기 7마리가 발견돼 고병원성 AI 감염 검사에 착수했다. 북구는 광주전변 도로에서 비둘기 7마

리가 죽어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폐사체를 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검사 의뢰하고 주변을 방역했다. 비둘기 사체를 건넌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곧바로 고병원성 AI 감염 검사를 한 뒤 이르면 오는 4일까지 북구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비둘기 감염 사례는 2012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어 고병원성 AI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비둘기 폐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쌀·콩 등이 섞인 조류 먹이가 대량 뿌려진 채로 발견돼 독극물이 포함된 먹이를 먹고 비둘기가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북부경찰은 이 곳에서 발견된 먹이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향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형일 : 2017. 1. 23(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형일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8(수) 오후 3시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